

적은 양무리여, 너희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4B)

성경말씀: 눅12:13-34

공생에 마지막 부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의 위선을 조심해라, 겉과 속이 다른 것
원인: 사람과 이 세상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
위선은 누룩과 같이 퍼진다. 도려내야 한다. 개개인이, 교회가

보통 사람의 등장과 탐욕의 현실

예수님이 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는 수많은 무리(1절) 중에 한 사람이 불쑥 나섬(13)

주님의 대답: 네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내 말의 초점은 땅의 일이 아니다(14).

나는 지금 인간의 부패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리새인들: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십일조(11:42),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함. 왜 그런가?

문제의 핵심은 탐욕이다(11:39; 12:15). 그래서 선행과 구제도 위선으로 한다.

탐욕은 사람을 추하게 만든다. 갑자기 뛰어드는 무례함(13), 주님의 '사람아' 응답

미국인 은행가의 예

자수성가 5형제자매, 자매의 아버지가 죽음, 집에 갔더니 나머지 4명이 모든 가구 등에 자기 이름을

붙여 놓음. 장례식 자체가 엉망, 마지막 날 저녁 식사 시간, 이 자매의 남편이 일어나 한 마디

'모두 귀중한 것에 딱지를 붙였군요', '저도 하렵니다' 어머니 손을 잡음"

탐욕=필요 이상으로 원하고 소유하는 것

출20:17을 범하는 죄, 우상숭배(골3:5; 엡5:3)

위선과 탐욕으로 재산을 불려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15).

지금 부자로 살아도 그것은 산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유한하다. 70-80 혹은 100세
그 이후의 생명이 참 생명이다. 그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는 자(시14:1)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16-21)

여기 부자는 모든 사람을 말함, 특히 종교적 위선으로 부를 쌓는 자들

쌓아 둘 곳이 없다(17), 공간을 헐고 더 크게(18), 나만 잘 먹고 잘 살자(19): 은퇴 이야기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쾌락주의, 솔로몬의 죄, 은퇴는 쾌락 No!

부자는 다 '나' 이야기만 한다(10여 회 이상), 내 열매, 내 공간, 나, 나, 나

구약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도와야 한다.

신15의 면제년 규정: 7년마다 면제(1-6), 가난한 자 구제(7, 11)

신정국가 체제에서는 이것이 유지되어야 백성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겉으로만 위선의 십일조 하지 말고 실제 필요한 선행과 구제를 해야 한다(11:41).

선행과 구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믿음이 있으면 해야 한다(잠21:26).

요약: 예수님의 말씀(33), 신정국가 체제의 헌금과 구제와 선행

그러나 이것은 교회 시대 성도들의 보상과 동일한 원리(고전3:12-15)

성도들에게도 보상의 심판이 있다(계22:12): 믿음의 행위에 따른 보상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34).

누구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보상을 받는 일에는 크게 신경을 쓴다.

하나님의 심판(20): 네가 죽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처럼 당장 죽든지 혹은 몇 년 더 살든지 죽는 것인 정해져 있다(히9:27).

위선 떠는 사람들, 종교인들의 정죄(21):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하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교회 헌금: 하나로 교회 살림, 선교 구제 등 감당, 대단히 감사하다.

과거의 우리를 돌아보자. 종교의 구습에서 대단히 힘들게 헌금 생활

우리 교회로 온 이후로 헌금 생활이 어떤가 스스로 판단하자.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가, 내게 대해 부요한가?

헌금은 부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고후8:1-2). 이런 아이러니가 믿음의 삶

뼈를 꺾는 아픔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아픔이 없으면 헌금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교회: 구약의 십일조는 강조하지 않는다. 다만 자발적으로 십분의 일 이상을 드리라고 가르친다.

이것을 남용하지 말라.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책무, 어쩔 수 없이 가르친다.

여러분의 보물이 정말로 하늘에 쌓인다고 하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해야 한다.

반대편 사람들: 주님의 성도들

반면에 목숨을 내걸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른 자들이 있다(22). 그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22-23)

까마귀 이야기(24)

결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부자도 많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주님께 맡기라는 뜻이다(25-26).

세상 부귀나 물질에 대한 우리의 흥망성쇠는 주님에게 달렸다.

출판사 운영(킹제임스 성경, 자유로운 행로), 목회(교회 크기, 진리의 말씀 전달) 등 양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주님의 뜻으로 알고 포기

다만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하고 나갈 것이다.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지 아니하셨느냐?(27-28) 백합, 학교의 툴립: 너무 너무 좋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드나?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신다(28).

그러므로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29).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필요 이상을 요구하는 탐욕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30). 만사형통, 무병장수는 기독교가 아니다.

적은 양무리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31).

생명 외에 더해 주신다(요10:10).

왕국: 하나님의 통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개인, 가정, 교회, 사회, 온 세상

주님의 말씀(32): 적은 양무리여

이렇게 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울의 탄식(빌2:19-22, 딤후4:9-11)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는 것은 기적이다: 느슨한 교회, 부목사 전도사 전무, 1주일 1번 모임 “스스로 서야 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이 자리를 잡고 확산되는 것은 기적이다: 사무실 직원 무(전화도 안 받음), 학익동 가장 허름한 돈에 지하 1층, 광고 홍보 전무: 경북 통합 측 목사님 3분 방문

이것이 얼마나 같지는 모르지만 교회 역사에서 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항상 적은 무리

그러므로 대형 교회 프로젝트 같은 것은 상상도 말자.

형편이 되는 대로 무리하지 않고 한다. 욕심 부리지 않는다. 안 되면 다시 원점 복귀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무리한 짐이 되어 모두 떠나면 못함

주님의 말씀 요약(33-34): 너희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섬김, 모임, 헌금, 선교, 구제

하늘 바라보고 하기 바란다.

딤후4:6-8

현물로 드릴 준비, 선한 싸움, 달려갈 기, 의의 왕관, 의로우신 심판자